

함께 사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6.4지방선거, 이제 키를 돌려야 한다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큰 충격을 준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문제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마음 속에 의문이 하나 자리 잡기 시작한다. 내가 탄 배는 무사한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선거인 동시에 국민들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물론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 이슈로만 뒤덮여서는 안 되겠지만 지역 정치는 사회 전체의 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과연 무엇이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인지 따져보고 선거에 임해보자.

모두가 챙기겠다는 '민생'은 어디로?

작년 경제개혁연대 설문조사 결과 국민 중 77%가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 대기업 중심, 부유층에게 유리하다고 답했다.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난 지금,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규제 완화 등 기업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스요금 5.8%, 전기요금 5.4% 등 올해 초 공공요금 인상안이 일제히 발표되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가 난 상황에서 철도요금 인상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지방선거 최대 이슈이자 이명박정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떠안은 빚은 7조4천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해법이 수도요금 인상이라니, 이걸 잘못은 대통령이고 책임은 국민이 지라는 것 아닌가.

문제는 또 있다. 103년간 경남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해온 진주의료원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쇄조치 된 사태는 공공성과 건강권보다 돈이 우선인 정부 정책의 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무능을 보여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있게 지역사회 구성원을 돌볼 책임이 있다. 돈 안되면 문 닫고 팔아먹는 민영화와는 다른 흐름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다.

2012년 한국의 절대빈곤율은 16.5%이다. OECD평균이 11.3%이니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기초수급자는 3년 만에 157만명에서 135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복지 우산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많아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줄어드는 이상한 나라, 해법은 없나?

지역이 나서서 공공성 지키기, 지방선거의 중요한 과제 되어야

여성노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거꾸로 가는 민생복지의 키를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너지는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소득과 상관없이 동절기 난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복지 우산을 키우고 촘촘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은 물론이고 공공산후조리원, 공공노인요양병원, 공공어린이집, 공공실버타운은 어떨까?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진행하는 것은? 공공사회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어떤가? 함께 돌보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이 바뀌어야 지역이 바뀐다

노동계약은 어때야 할까? 지자체만해도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지자체

가 앞장서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실행하여 지역사회에 호응을 이끌어내는 사례가 많아져야 한다. 노동이 바뀌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지역이 변화한다. 그런 면에서 여성노동자들이 평등하게 일하는 지역을 위해 몇 가지 제안한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다.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학교비정규직은 97% 이상이 여성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미 서울시와 인천 남동구 등에서 정규직화를 이뤘다.
- 여성고용 늘리겠다고 무작정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돌봄직종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는 초단시간으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 및 교육청이 마음 먹으면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는 퇴출할 수 있다.
- 한 달 꼬박 일해서 받는 월급이 108만원,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이 이렇다.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가 살만한 지역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의 의무다. 이미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부천시 등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볼티모어시처럼 지자체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내 손으로 뽑는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중요

지난 4년 교육감에 따라 지역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다. 진보교육감이 들어선 전북, 강원, 경기 등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훨씬 좋은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따냈다. 교육감 직접고용도 진보교육감 진영이 먼저 이뤄졌다. 반면 대표적인 보수교육감이 있는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노력하여 진보교육감을 만들어낸다면 특권 교육이 아닌 평등교육으로, 소득별 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으로, 인권의 학교로 가는 교두보를 놓는 셈이다. 제대로 된 교육현장, 평등한 일터를 만드는 일도 진보교육감과 함께일 때 더 힘을 받을 수 있다. 6.4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민생 파괴의 제동을 걸고, 함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3월 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여성노동정치행동(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 70년대 여성노동운동가' 주최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독립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선언문에서 '최소한 한 인간으로서 노동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오늘 여성노동독립선언을 외친다.'고 하였다.

| 서울 | 서강대분회 단체협약 조인식 가져



지난 4월 22일, 서울지부는 서강대분회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작년 12월부터 4월까지 총 11회라는 긴 시간동안 진행된 단체교섭의 결과인 만큼 그 의미도 컸다. 또한 ▲ 시급 6,100원 ▲ 명절수당 36만원 ▲ 분회사무실 제공 및 운영비 지원 등 많은 성과가 있어 더욱 값진 것이었다. 이런 의미를 살리듯 조인식에는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교섭위원들은 물론, 용역회사 삼구 교섭위원과 임직원 등이 참여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그리고 단체협약을 위한 상호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서로 상생하며 잘 지겨가자는 약속도 함께 나눴다. 서강대분회의 조인식은 끝났지만 단협 이행이라는 과제가 남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서강대분회가 더 단결하길 바란다.

| 경기 | 3~4월 활동 이모저모



3월~4월 학교비정규직 '경기단협설명 및 처우개선 변경'을 알리는 현장방문을 하였다. 단협 체결이후 달린 근로조건과 권리 등 궁금한 점도 설명하였다.

올해가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경기여성대회 10주년이다. 지부는 경기여성대회에 참석하여 기념행사 후 영상을 감상하였고 퍼포먼스와 행진도 있었다. 마무리로 조미란 지부장의 인사말도 있었다.

또한 경기교육희망연대에 참석해 혁신교육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대표자회의와 일정에 함께하고 있다. 민주적 교육개혁 단일후보 경선에 권오일, 이재삼, 이재정, 최창의 4명 후보로 내부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확정하게 된다. 단일후보를 세우기 위해 조합원이 시민추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전북 | 2014년 조합원 교육 시작



지난 4월 15일 장수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지역별 조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으로 올리자!

국제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연방정부 노동자들에게 10.10달러 최저임금 적용을 약속했고, 독일은 1만2천원에 해당하는



는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등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격차 완화와 내수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 한달 월급 108만원, 시급 5,210원이 2014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었다. 평균 점심값이 6,219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어도 너무 적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선'일 뿐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고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변질됐다. 소득불평등이 날로 극심해지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현실은 너무 낮은 최저임금과 무관치 않다.

여성노조는 가장 먼저 사회에 최저임금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모두 알다시피 여성노동자임금이 최저임금이라는 공식은 여전하다. 특히 50~60대 장년층과 노년층 여성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면서도 늘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알바'로 불리는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대표적인 최저임금 당사자들이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여성노동자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이 눈

물겨운 현실이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 최근 정부의 연구 결과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평균임금이 180여만원이니 정부 입장대로면 최저임금은 더 인상될 여지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숫자놀음으로 기만한 것이다.

여성노조는 최저임금연대 단위들과 함께 2015년 최저임금을 적어도 6,700원보다 높게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요구안은 불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등의 수치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두루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우리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심각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합원 교육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바뀌는 월급제와 통상임금 등 주요 내용과 평소 문의가 많은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조합원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참여하여 진행하였다.

| 대구경북 | 경북대분회 봄야유회



4월 12일(토) 햇볕 아래 핀 유채꽃, 복수초, 벚꽃이 만발한 날 여수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뿜내는 항일암과 오동도를 버스로 경북대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34명이 다녀왔다. 버스 안에서 모두 노래를 불러 흥겨웠으며, 조애자분회장의 인사와 신연숙 조직부장 사회로 여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동시간 내내 각자 싸온 푸짐한 음식도 나왔다. 생활관 분회에서 녹두송편을 찐조했다. 쫄깃쫄깃 하다며 간부들에게 칭찬을 하였고 간부들은 더 없이 조합원들에게 고마워하며 뿌듯해 하였다.

원효대사가 659년에 만들었다는 항일암에서 좁은 돌틈 사이를 지나는 재미도 있었다. 절까지 올라가기에는 다리가 아프신 분회 조합원들은 여기 저기 벤치에 앉아서 구경을 하시고 내려오면서 산 아래 식당에서 동동주를 마시며 가무도 곁들였다. 식당 주인이 흥에 겨워 굴 한 접시 서비스를 주셨다. 경대 조합원들은 고맙고 감사하다며 노래로 답해 개그콘서트 한 장면도 연출하였다. 모두 배꼽이 빠져라 웃고 즐기며 버스를 타고 오동도를 지나 대구로 향했다. 오는 동안에도 내내 흥겹고 즐거웠다.

| 광주전남 | 부당징계 복직 쟁취 및 사무실 이전 개소식 열려



광주시 광산구내 일반사업장 한국○○에 근무하는 이○○에게 임금삭감 부동의로 인해 보복성 징계가 내려졌다. 이○○조합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까지 3년 동안 소송 결과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광주전남지부와 여성노동자회가 공조해 2회에 걸친 공장장 면담으로 임금삭감 없이 원직복직 성과를 이뤄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느낄수 있었다.

2013단체교섭의 결과로 광주시교육청에서 마련해 준 새로운 보금자리로 4월 10일 이사를 하였다. 새동지 주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322번길 6(신창동) 301호이다.(신창동(구)교육연수원건물)

세월호 침몰로 사국이 애통하여 실내에서 엄숙하게 조출한 개소식을 4월 23일 오후 7시 많은 조합원들이

88CC분회 6년 투쟁의 성과로 조합원 업무복귀



88CC분회는 원직 복직투쟁을 2008년부터 약 6년여에 걸쳐 장기 투쟁을 하고 있다.

그동안 집회, 농성, 단식, 단체교섭 진행, 회사 간부와 면담진행, 법적대응

등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6년 투쟁의 성과로 올해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해고된 경기보조원 48명중 43명이 업무복귀 하였다. 그러나 간부들은 업무복귀를 하지 못하였다. 회사는 노조가 활성화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복귀를 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투쟁승리보고 회의를 할 수 없어 미루고 있다. 이런 88CC분회의 상황을 나누고자 경기보조원 경력 25년째인 김은숙 분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Q. 해고투쟁 승소로 다수의 조합원들이 업무복귀를 하였다. 업무복귀 소감을 말해 달라.

A. 물론 기나긴 해고 기간 끝에 업무 복귀된 다수의 조합원들 무척 기쁘다. 단결된 투쟁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회사 입장이 대법원 판결에 의한 개개인의 업무복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부들은 아직도 해고인 것이다. 간부들은 회사 출입을 못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긴장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원직복직이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협의과정을 거쳐 복귀한다. 그러나 88CC회사는 그렇지 않다. 국가보훈처 산하인 88CC회사는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된다. 사장 임금도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우리들 6년 해고기간동안 88CC회사 사장이 바뀌었다. 바뀐 현 사장은 법 판결대로만 하겠다고 한

다. 노조와 협의를 통한 어떤 내용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복귀한 조합원들은 간부들이 복직해 회사와 단체교섭 체결하던 예전의 노동조합 시절을 바라고 있다. 우리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Q. 2001년도 단체교섭 최초 체결 당시 경기보조원들에게 달라진 점은 무엇이었나?

A. 고용안정이 확보되어 우리들 스스로가 당당해졌다. 경기보조원일에 자부심도 한층 높아졌다. 인권침해, 노동착취를 당해도 회사눈치, 손님눈치 보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노조가 생기고 단협이 체결되니 회사나 손님이 함부로 하지 않았다. 손님들 중에 혹여 인권침해를 할라치면 다른 손님이 “말조심해, 여기 노동조합 있어. 경기보조원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돼.”라고도 했다. 또한 타 회사 경기보조원들이 꿈의 직장으로 대단히 부러워했으며, 88CC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했다.

Q. 여성노조 건설의 주역이며, 초창기 분회인 88CC분회로 여성노조 조합원들에게 한마디 바란다.

A.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변화를 바라는 초심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그 안에서 우리 88CC분회 조합원들의 유대감은 남다르다. 긴 세월 투쟁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내왔고 허물없이 가깝다. 한 가족인 듯하다. 이타자 없이 톨톨 뭉쳤고 서로가 있어 힘이 됐고 행복했다. 어디가서 사람을 이렇게 믿고 살 수 있겠나 싶다. 싸움에서 지는 건 무섭지 않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렵다. 모두가 원직 복직되어 승리보고대회 하는 그날에 기쁨을 여성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하겠다.

| 대전충청 | 목원대분회 단체교섭 진행중



목원대분회가 2014년 근로조건에 대한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약 5개월째 진행 중이다. 회사가 원청인 학교와의 도급계약이 작년과 같은 조건으로 동결되었다며 중간 합의되었던 경조사비와 명절수당 인상도 말을 바꾸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3월 26일과 4월 16일, 전체 조합원 모임을 통해 교섭 상황을 공유하고 이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그리고 퇴직연금제도,

통상임금, 부당노동행위, 전임제 등 노조 및 노동관련 법 교육으로 알차게 진행했다.

| 경남 | 좋은 교육감 선출을 위해



낯은 교육은 가라! 다가오는 6월 4일 지역단체장과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는 날이다. 경남지역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좋은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박종훈 후보를 선출하였다. 3월 27일엔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선거사무실 개소식도 하였다.

박종훈 후보는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학교내 비정규직의 자존심을 살리고, 교육의 주체로 당당히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교육감 직접고용과 교육청의 정원관리, 호봉제 도입과 임금기준일수 단계적 폐지, 정규직과 동일한 최소한의 수당, 노동시간 차별해소,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는 예산 별도편성 등 다양한 학교비정규직 정책을 밝혔다.

차별받지 않는 평등학교 실현, 첫 출발은 낯은 교육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감을 선출하여 경상남도 교육청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6월 4일 우리의 의지를 모아 경남에서 좋은 교육감 한번 만들어 보자.

| 울산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제도마련을 위해 6.4지방선거 후보와 정책협약하다



4월 7일 6.4지방선거 울산시장후보와 울산 2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많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시설에선 돌봄 대상자 인원이 너무 많으며 야간을 포함한 교대제로 인한 장시간의 노동 강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가시설에서는 이용자 상황에 따라 고용불안 등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이에 울산지부는 4월 10일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와 요양보호사 자격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을 반드시 하겠다는 통합진보당 울산시장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하였다.

| 울산 | 울산교육감은 국정감사 약속을 지켜라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울산교육감은 ‘조리원들의 노동 강도가 세니까 급식비징수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올해 울산지역 207개 학교 중 34개 학교만 징수를 하고 있다.

이에 여성노조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4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리종사원들이 일을 하는데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며, 옆 학교와의 차별을 야기 시키는 울산교육청의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교육 행정을 규탄했다. 문제해결을 하지 않을 시 울산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상담 | 학교에서 기능직 공무원 대체로 계속 근로기간 2년 초과 해고조합원, 복직판결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조무보조원으로 근로하다 해고통보를 받은 A조합원 상 담사례입니다.

A조합원은 2011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대체로 ○○학교에 입사한 후 계속 근로기간 2년 넘게 근무해 왔고, 계속 근로기간 2년 이상 근무로 경기도교육청에 무기계약 전환 요청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공무원 대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어렵다고 전해왔고, 이후 ○○학교로부터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 대체 조무보조원 인건비를 더 이상 경기도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아 계약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고처분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고한 사실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또다시 해고통보를 해왔습니다. 결국 A조합원은 지난해 경기도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노위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지노위는 판결문에 주요

쟁점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 이 사건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 점 등으로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원직복직 승소판결로 경기도교육청과 A조합원의 근무조건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A조합원은 무기전환이니 기존의 근무조건이 아닌 개선된 근무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교육청은 기존의 근무조건만을 제시하여 협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A조합원은 처우조건 개선없이 복직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여성노동자 힘키우기 리더십 교육 '학교비정규직 직종교섭위원 및 전임(예정)자 워크숍' 개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교섭이 열리면서 주요 조합원들이 직종 대표로 참여하게 되었다. 직종별 교섭 참여를 계기로 직종을 조직하고 활성화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간부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되어 지난 3월 29일 대전 여민회에서 학교비정규직 직종교섭위원(교육부) 및 전임(예정)자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서울, 경기, 전북, 광주전남, 경남, 대구경북 지역에서 과학, 교무, 특수, 급식, 사서직종 등 다양한 직종이 모인 자리였다.

'6.4지방선거와 일하는 사람들'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정세강의를 하였다. 노광표 소장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공약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며, 여성노동자 투쟁에서도 핵심적이다."고 하였다. 더불어 오는 6.4지방선거의 중요성과 노동조합 힘 키우기, 노동조합운동 과제도 제시하였다.

자신의 직종 뿐만 아니라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직종으로 모듬토론을 하였다. 자기소개도 모듬별로 주사위를 던져 질문지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교섭교육도 모듬별로 다른 직종 교섭경험을 나누는 방식이었으며, '나는 어떤 사람, 교섭에 들어가봤더니, 교섭에서 다양한 요구 반영하기'로 모아 모듬별 대표가 발표하는 발표 시간을 가졌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두 번째 교섭교육으로 진행하였다.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다음 교육에 바라는 점을 각각의 스티커에 작성해 붙이는 참가자 교육평가도 있었다. 좋았던 점으로 '여러 직종의 어려움을 알고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문화예술마당 | 애니메이션 '파닥파닥' 보셨나요?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고등어 '파닥파닥'은 그물에 잡혀 횃집 수족관에 갇힌다. 횃집이라 인간의 음식물일 수밖에 없는 횃집 수족관 물고기들인데 그들 중 신망 받는 권력자도 있다. 가장 오래 살아남은 '올드 넘치'다. '파닥파닥'은 바다로 돌아갈 꿈을 안고 탈출을 시도 한다. 꿈을 향해 행동하는 '파닥파닥'으로 인해 수족관속은 갈등을 동반한 사건의 연속이다. 권력자 '올드 넘치'와의 갈등은 나날이 커진다. 다른 어류들은 '파닥파닥' 탈출에 동요하기도 한다.



횃집 수족관은 마치 계급화·서열화가 만연한 인간사회를 축소해놓은 듯하다. 절대적인 힘 서열 1위 권력자,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계산이 빠른 현실주의자, 힘 있는 자라면 여기저기 붙는 기회주의자,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냉소주의자, 꿈조차 꾸지 않는 현실안주자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모습이 물고기 얼굴로 등장한다. 특히 수족관 '보이지 않는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고 현실에 안주하는 물고기들의 모습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파닥파닥'이 바다로 되돌아가려고 끊임없이 행동하는 도전의식에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무엇인지 물어두고 잊고 있었던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만든다.

제작자 이대희 감독은 말한다. "그 주체가 누가 됐든지 답답한 현실을 깨트리려는 움직임은 늘 존재한다. 누군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파닥파닥'이라는 말이 무의미한 몸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작은 몸짓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보잘 것 없고 무의미해 보이는 움직임으로 누군가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고. 고등어가 행동 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는 고등어에 의해 '올드 넘치'와 놀래미는 변화하는 사람이다."라고.

'파닥파닥'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여성노조 조합원들이 떠올랐다. 여성노조는 학교비정규직 10여년 투쟁의 산 증인이며, 학교비정규직 투쟁의 밑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존재조차 몰랐던 그 시절, 부당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요구하고 투쟁하며 우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조금씩 처우개선이 되면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이다. 당장 우리 투쟁이 소소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파닥파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작은 몸짓과 목소리가 '파닥파닥'이 '올드 넘치'와 놀래미를 변화시켰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 않은가.

- 전북지부